

마음 열기

찬송가 273장을 함께 부르시다.

내가 하고 있는 봉사 중에, 가장 기쁘고 즐거운 것은 무엇인가요?

말씀 나누기 창세기 11장 1-9절, “바벨탑은 무너진다”

우리는 마음을 하나님께로 정해야 합니다.

노아의 홍수 사건 이후 노아의 후손들은 크게 번성했습니다. 그리고 언어와 말이 하나가 되었는데, 이 말은 마음과 목표가 하나가 되었다는 뜻입니다(1절).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하나 된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자신들의 이름을 내기 위함이었습니(4절). 이 옳지 않은 목표를 품은 사람들은 결국 시날 평지에 머물게 됩니다(2절). 시날 평지는 바벨론과 바사 제국이 세워질 자리로써 하나님을 대적하는 멸망의 자리를 상징합니다. 이처럼 잘못된 목표와 마음으로 하나된 사람들은 잘못된 자리, 멸망의 자리로 모이게 되었고, 결국 무너지고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교회도 세상적인 목표로 하나가 되면 바벨탑처럼 무너지고 흩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잘못된 목표로 나아가면 잠시 잘 되는 것 같지만, 결국 하나님을 떠나 멸망의 자리로 나아갈 수 밖에 없습니다.** 요나 또한 하나님을 피해 도망가던 중,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은혜가 아니었고, 오히려 사탄 마귀의 길이었습니(다. 이처럼 마귀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세상으로 더 깊이 빠지도록 계속 길을 열어주고 도와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평안하고 잘 될 때, 안심하고 안주하기보다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고 있는 것이 아닌지 분별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마음을 하나님께로 정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기로 다짐했다면, 더 이상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갈등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하나님과 말씀으로 맞추고 올바른 목표를 향해 나아갈 때, 우리 안에 있는 멸망의 바벨탑이 무너지고, 그 자리에 거룩한 영적 성전이 세워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전에 하나님이 거하시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날마다 새로워지고 회복될 것입니다.

바벨탑은 무너집니다.

하나님은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 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하시며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고 흠으셨습니다(5-9절). “막을 수 없으리로다” 하신 것은, 사람들이 듣고 깨닫지 못할 상태가 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벨탑을 쌓던 사람들을 다 죽여 없애지 않으시고,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흠으셨습니다. 이것은 심판이 아니라, 회개할 기회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날 우리

도 우리의 욕심, 세상적 계획과 같은 영적 바벨탑이 막히고 실패할 때가 있습니다. 그 때에 우리는 낙심하기보다 오히려 감사해야 합니다. 그 바벨탑이 무너지지 않았다면 우리는 평생 세상만 바라보다 멸망했을 것이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속에 있는 바벨탑이 무너질 때에 오히려 감사하면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날의 영적 바벨탑에는 욕심과 교만, 게으름과 편안함이 있습니다. 이러한 바벨탑은 교회를 무너지게 합니다. 교회는 성도의 헌신과 봉사를 통해 세워져 갑니다. 예루살렘 성전도 성도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웠고(왕상5:13), 초대 교회 또한 성도들이 모이기를 힘썼습니다(행2:46-47). 이들은 떡을 떼며 교제하며 기도와 찬양에 힘썼고(행2:42), 심지어는 서로의 전 재산을 내어 놓아 균등하게 나누기도 하였습니다(행2:44-45;4:32-35). 오늘 우리는 이러한 영적 바벨탑을 무너뜨리고 교회를 세우는 자리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바로 세워지면, 교회를 통해 은혜가 회복되고, 교회와 성도가 더 견고해지고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맺음말.

우리가 스스로 바벨탑을 허물지 않고 고집하면, 결국 하나님께서 직접 무너뜨리실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무너뜨리는 것 보다, 하나님이 무너뜨리실 때가 훨씬 더 고통스러울 수 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치시기 전에, 우리의 영적 바벨탑을 스스로 허물고 마음을 하나님께로 정하시기 바랍니다. 그 때에 우리 심령과 교회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영적 성전이 세워지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은혜가 회복되고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으로 나아가기

말씀의 은혜를 나누시다.

1. 내가 지금 세우고 있는 영적 바벨탑은 무엇인가요?
2. 그동안 무너졌던 나의 계획들을 돌아봅시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던 적이 있나요?
3. 내가 다시 회복하고 싶은 헌신의 자리가 있나요?

말씀을 따라 결단하며 기도합시다.

1. 게으르고 편안하게 신앙생활 하려 했던 모습을 회개합시다.
2. 내 뜻과 계획이 막힐 때,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게 해 달라고 기도합시다.
3. 교회를 향한 봉사와 헌신이 짐이 아니라 기쁨이 되게 해 달라고 기도합시다.

신앙백과_ “갈등 앞에서 ‘올바르게’ 싸우자”

우리는 수많은 순간 속에서 갈등을 마주합니다. 그 가운데에서 복음은 우리의 내면뿐만 아니라 관계의 갈등까지 회복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만일 복음이 갈등 해결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면, 그것은 복음이 우리 내면 깊은 곳을 만지지 않았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갈등 상황에서 흔히 보이는 두 가지의 ‘잘못된 태도’가 있습니다. 먼저 “공격적 태도”입니다. 정의와 옳고 그름을 소중히 여기며, 논쟁에서 이기는 것을 사랑하는 것보다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분노를 발산하고, 변호사처럼 상대를 심문하며 논쟁의 원인을 상대에게 돌립니다. 두 번째로 “방어적 태도”입니다. 갈등을 무시하거나 피하며, 평화를 지킨다는 명목으로 침묵하거나 냉담하게 반응합니다. 싸움을 피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며 논쟁의 자리를 떠나버리기도 합니다.

바울은 이러한 갈등 상황 앞에서 좋은 본모습을 보여줍니다. 갈라디아서 2장에서 베드로는 이방인 신자들을 외면하였습니다. 이것은 아주 중대한 잘못이었습니다. 베드로의 행동으로 인해 ‘누구에게나 열려있어야 하는’ 복음의 진리가 가리워질 수도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베드로를 회피하거나 뒤에서 험담하지 않았습니다. 갈등 당사자를 직접 찾아가 문제를 대면했습니다. 그리고 그를 대면한 바울은 절대 그를 공격하지 않았습니다. 문제를 있는 그대로 설명하고 상대의 반응을 기다렸습니다. 중요한 것은, 바울은 베드로를 굴복시키려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목표는 베드로와의 관계 회복이었고, 궁극적으로는 올바른 복음을 회복하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보다도 갈등 해소의 완벽한 모본을 보여 주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진노를 우리에게 쏟아붓지 않으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회피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셨고 결코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이 뿐만 아니라 먼저 다가오셨고, 우리를 위해 희생하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죄를 드러내심과 동시에 용서해 주셨고, 화해의 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성경적인 갈등 해소의 동기는 사리사욕이 아닌 사랑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갈등을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와 확신의 근거는 믿음이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갈등을 해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갈등 해결의 방법은 은혜와 진리여야 합니다. 나의 생각과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모든 말과 행동의 근거가 되어야 합니다. 이처럼 복음은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넘치는 능력을 공급합니다. 만약 내가 갈등 앞에서 공격적이거나 회피적인 태도를 당연시 여겨왔다면, 그 길을 버려야 합니다. 복음의 능력과 은혜로 무너졌던 관계가 회복되고, 그 자리에 사랑이 넘쳐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복음 중심 삶”, 생명의 말씀사

FAMILY 나눔

2026년 4월 19일

바벨탑은 무너진다

창세기 11장 1-9절

